

대웅제약, 디지털헬스케어 확장... '씽크' 보험수가 획득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국내 첫 국산화한 2등급 의료기기 24시간혈압측정검사 획득도 예정
준중합병원까지 공급 확대 계획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 '씽크'가 국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로는 처음으로 보험수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씽크'는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월 씨어스테크놀로지와 씽크 국내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씽크는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데이터 수집장치(게이트 웨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의료진에게 즉각 전달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 질을 높여준다.



3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씽크 기자간담회'에서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 사업부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번 보험수가 획득이 씽크의 이러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씽크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됐고, 취득 요양 급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일당 심전도감시 4만4287원, 산소포화도 측정 9971원, 심전도 침상감시 1만 8803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3분기에는 24시간혈압측정검사에 대해서도 1만5190원 수준의 급여 획득을 추가적으로

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기술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비급여서비스도 선보인다. 씽크를 도입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심정지 및 악성부정맥 예측 서비스, 패혈증 예측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 사업부장은 "씽크의 경쟁력은 기술 고도

화와 비용 경쟁력"이라며 "디지털 의료기기 국산화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기존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까지 낮췄다"고 강조했다.

씽크는 현재 10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씽크 공급을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준중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3000개 병동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씽크가 해당하는 국내 의료 시장 규모는 70만 병동,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2020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해 왔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웨어러블 심전도기기 '모비케어',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르비피', 실명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위스키' 등을 지속 도입했다.

그 결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와 함께 종합병원 중심으로 가능했던 24시간 심전도검사, 연속 혈압 측정검사 등이 지역

의원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추세다.

24시간 심전도검사 월평균 건수는 2022년 4083건에서 2024년 829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연속 혈압 측정검사의 경우 1406건에서 9966건으로 급증했다. 각각 대웅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모비케어, 카르비피 등의 확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당뇨, 심장 및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부터 일상 속 건강검진까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사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날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사업부장은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예약해 방문하고 이후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현대에는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감지되거나 질환이 예측되면 의료진들이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 혁신 기술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ADC 항암신약 인체임상 '첫발'

(항체·약물접합제)

美 FDA에 CT-P70 IND 제출
올해 중반 첫 환자 투여 목표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차 돌입

셀트리온이 항체·약물접합제(ADC) 항암신약의 첫 인체 임상에 돌입한다. 바이오시미리러 선도 기업을 넘어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의 전환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ADC 항암신약 'CT-P70'의 글로벌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IND 신청은 셀트리온이 지난 달 열린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 도약 전략'의 첫 실행 사례로, 발표 약 보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ADC 항암 치료제로, 암세포에

서 활성화해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표적으로 삼는다. 셀트리온은 올해 중반 첫 환자 투여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 1상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CT-P70은 앞서 시험관, 동물실험 등 비임상을 통해 폐암, 대장암, 위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형암 모델에서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특히, 경쟁사 cMET 표적 ADC에 비해 cMET 저발현 종양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또한 치료지수 측면에서 임상개발 중인 경쟁사 파이프라인을 능가하는 높은 수치를 확인해, 같은 기전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베스트인클래스(Best-in-class) 신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CT-P70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공동개발한 신규 페이로드 'PBX-7016'을 적용했다. PBX-7016은 기존 개발된 기술 대비 효능과 우수

한 안전성을 확보한 플랫폼 기술로, 낮은 독성과 높은 투여량을 통해 우수한 종양내 침투 등에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신약개발사로의 전환도 본격화 된다. 셀트리온은 CT-P70을 시작으로 올해 총 4건의 IND를 제출해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절차에 순차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에 ADC 신약 2건, 다중항체 신약 2건, 2027년에는 ADC 신약 3건, 2028년에는 ADC 신약 1건, 다중항체 신약 1건 등 총 13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이 예정된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0을 기존 ADC 제품 대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항암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치료제를 지속 개발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에이피알, 포맨트 '짱구 에디션' 완판

출시 약 2달 만의 '성과'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퍼펙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맨트에서 공개한 '코튼 허그 리미티드 짱구 에디션'이 출시 약 2달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매 성과는 브랜드 사상 최단기 실적이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포맨트 공식몰에서 출시 7일만에 완판됐다. 타 채널에서는 최초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달 만에 전체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포맨트 한정판 제품군 가운데 이번 짱구 한정판은 초도 물량 완판에 따라 추가 발주까지 이뤄지는 등 최대 발주량으로 선보여졌음에도 빠른 속도로 판

매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완판 행진을 일으킨 짱구 한정판은 포맨트의 대표 향수 제품인 '코튼 허그'에 은방울꽃, 장미, 자스민, 오렌지 꽃 등의 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포맨트는 계절마다 해당 계절의 느낌을 향기로 구현한 한정판 제품을 지속 출시해 왔다. 짱구 한정판의 경우 겨울을 맞아 '코튼 허그' 이불을 덮고 잠든 짱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향후에도 포맨트 계절별 한정판 제품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포맨트 공식몰 내 '콜라보레이션' 메뉴를 별도 개설해 지금까지 협업해 온 한정판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토트넘 홋스퍼 한정판 공개

'아이디얼 포 맨' 스킨케어 제품 3종

CJ올리브영은 남성화장품 브랜드 '아이디얼 포 맨'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토트넘 홋스퍼'와 협업한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디얼 포 맨X토트넘 홋스퍼' 한정판은 아이디얼 포 맨의 스킨케어 제품인 퍼펙트 올인원, 시카 올인원, 퍼펙트 탄력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은 공식 라이선스 제품으로, 제품 디자인에는 토트넘 엠블럼과 구단을 상징하는 하얀색·남색이 새롭게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한정판 구매 고객은 특별 제작된 스포츠 양말도 증정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은 이번 한정판 출시를 통해 남성 고객의 뷰티 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아이디얼 포 맨X토트넘 홋스퍼' 한정판 3종. /CJ올리브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리브영이 남성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9명은 '깔끔한 인상을 위해'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뷰티가 주는 '꾸미는' 인상보다는 '관리한다'는 의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경영권 인수

GMP 확보, CDMO 생태계 구축 박차

인벤티지랩이 백신개발 및 위탁개발 생산(CDMO) 전문 기업 큐라티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CDMO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인벤티지랩은 3일 큐라티스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전환사채 인수 및 보통주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3월까지 2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물량을 포함할 경우 큐라티스 지분의 약 40%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인벤티지랩은 큐라티스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큐라티스 오송바이오플랜트 내 장기지속형 주사제 전용 제조설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인벤티지랩은 앞서 자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확보를 위해 최근 538억원의 대규모 편당을 추진한 바 있다. 큐라티스의 오송바이오플랜트는 cGMP, 유럽(EU)-GMP 등 글로벌 수준의 GMP 제조시설을 갖춘 사이트로, mRNA 백신의 글로벌 임상생

플 제조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및 제조 플랫폼 기술인 IVL-DrugFluidic 을 오송바이오플랜트 공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및 국내 제약사와의 임상 프로젝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 이후의 상업화 단계의 양산도 동일한 제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다른 플랫폼인 차세대 mRNA 백신 및 치료제에 적용되는 지질나노입자(LNP) 사업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